

#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착한 기업”



1 예천군 안심가로등 점등식 2 희망나래 도서관 개관식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은 우리나라 전력의 약 30%를 생산하는 종합에너지기업으로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소외된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있다.

한수원은 전국 지역아동센터의 학습환경개선을 위한 ‘행복더함 희망나래 사업’과 방범 취약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안심가로등’ 사업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04년 사회공헌 전담조직과 ‘한수원 사회봉사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사회공헌사업을 시작했다. 직원들의 자발적 성금인 러브 펀드와 회사에서 후원하는 매칭 그랜트를 더해 조성한 ‘민들레 흙씨기금’을 재원으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 중이다.

한수원은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행복더함 희망나래’사업을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국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차량 지원, 도서관 설치,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까지 지원한 승합차는 총 494대에 달하며 이 승합차들은 아동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책임지고 프로그램 체험을 위한 이동수단으로 사용된다.

희망나래 도서관은 총 237곳이 새롭게 조성됐다. 도서관 내에는 아이들을 위한 각종 서적과 인테리어 및 도서 관리 DB 컴퓨터 등이 제공된다.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문화제 견학, 공연 관람 등으로 구성되며 약 1천800명의 아동이 체험을 통해 견문과 학식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경주가 본사인 한수원은 경주 소재 28곳의 지역아동센터에 영어 온라인 학습과 영어 집중캠프를 진행하면서 지역대표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

현 중이다.

‘안심가로등 사업’은 주민들의 안전한 귀갓길을 위한 한수원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이다. ‘빛’을 선물해줄 수 있는 사업으로 시작했고, 어둡고 후미진 골목길에 가로등을 설치해 밤에도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안심가로등은 낮에 충전한 태양광으로 밤에 불을 밝힌다. 한번 충전으로 7일 정도 이용이 가능해 장마철이나 흐린 날씨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일반 전기와 연동돼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없을 때도 가로등이 꺼지지 않는다.

한수원은 2014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영덕, 고창, 부산 등 전국에 모두 1천703개의 가로등을 설치했다. 올해는 경북 경주시에 110개를 비롯해 예천, 인천, 강릉 등 전국 7개 지역에 332개의 안심가로등을 설치했다.

한수원은 이런 성과로 2017년 10월 제2회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에서 범죄예방 활동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안심가로등으로 방범 취약지역을 밝혀 범죄예방에 독특한 역할을 했다는 평이다. ⑦